

지역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외협력부

내년이면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대학교는 1946년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자는 민족적 자각을 바탕으로 7만 2천여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그 동안 16만 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지역인재의 산실로, 현재 14개 단과대학 총 70개 학과와 7개 대학원에 3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명실상부 호남 최대의 명문사학이다.

12대 김주훈 총장 체제 출범 이후 '지역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실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국가와 지역사회·문화를 선도할 연구 성과 창출, 학교 분야에서 21세기 지역유망산업 최고수준 달성 등에 초점을 맞춰 대학 역량을 한데 모으고 있다.

I. 장기발전계획 NEW JUMP 2010 수립

조선대학교는 전국 10위권 대학 진입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발전계획 'NEW JUMP 2010'을 수립하고,

'지역과 세계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의 3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춘다는 목표 아래 교육개혁, 산학협력, 특성화, 선진형 행정체계 구축, 친환경 캠퍼스 조성의 5대 경영전략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익성 개념을 강조했다. 즉 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창의적 교육과 실용교육으로 전환하여 취업률을 대폭 제고하며 연구 패러다임 개선 및 산학협력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중핵대학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첨단부품소재산업, 문화정보산업, 생명공학, 에너지·환경, 국제협력 등 5대 특성화를 통해 더욱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건전한 경쟁과 보상제도를 도입한 선진형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환경의 첨단화, 쾌적한 캠퍼스, 구성원과 지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캠퍼스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전경 ▲

또한 5대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혁신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 실행 ▲예산과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on demand talent) 양성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생산교육 실천 ▲학문분야별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사용자의 필요성과 고객만족 개념 강조 ▲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미래형 캠퍼스 조성 ▲부문별 분권화 및 책임성 강조 등의 기본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에는 국내 10위권, 세계 500위권 연구력에 진입하는 대학, 지방중핵대학,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Ⅱ. NURI 사업 7개 분야 선정, 전국 최고의 성과

조선대학교의 저력과 변화를 대외적으로 인

정 받은 성과로 ‘지방대학혁신역량사업(NURI)’을 들 수 있다. 조선대학교는 2004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 차용훈·대형)’, ‘전통식품 첨단화인력 양성사업’(단장 장해춘·중형), ‘광주전남지역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MCB(Multi-talented China Business)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 이성민·소형), ‘치의공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 강동완·소형)’ 등 4개 과제에서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협력대학으로 참여한 ‘전남권 고용창출과 조선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고흥 우주항공센터와 연계된 기계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까지 총 507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다. 2005년 2차년도 선정에서 문화관광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총 7개 분야, 568억 원의 지원금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주훈 총장은 “NURI사업에서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는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NURI사업을 장기적인 대학발전계획과 연계시켜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를 주도하는 지역중핵대학으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선대학교가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한 것은 지역특화산업, 대학특성화 전략 및 장기발전계획에 들어맞는 사업에 집중한 것과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온 산학협력 성과가 축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구성원들 사이에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대학특성화 전략 및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한 사업을 선택한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조선대학교 NURI 사업단은 2004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 지역혁신박람회 성공사례 발표, 전국 누리사업협의회 워크숍 모범 사례 발표 등 성공적인 운영으로 타 대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

Ⅲ. 국내 10위권 대학 진입

조선대학교는 NURI사업을 발판으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전국대학 순위 TOP 10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지역혁신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NURI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취업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주

요 핵심전략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정착 ▲신(新)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산학캠퍼스 운영 ▲지역혁신 산업 클러스터에 핵심적 기여 ▲취업률 70% 달성 ▲우수학생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정착을 위해 ▲실용학문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 ▲산학협력전임(겸임)교수 도입 ▲순환형, 자율개선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산학캠퍼스 운영을 위해 첨단산업단지에 대지 3,200평, 연건평 1,100평 규모의 산학캠퍼스를 건립하였으며 산학협력센터 구축 ▲산학기술정보센터 설립 ▲산학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 구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3대 주력사업인 자동차부품산업, 광산업, 가전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국책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R&D를 수행한다. 취업률 70% 달성을 위해 학과별 취업전담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어학, 인턴십, 취업준비 교육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배양하는 한편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리쿠르트 조인트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16개 학과에 5년 동안 10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Ⅳ.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견인차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Vision Provider’로 각광받고 있는 조선대학교는 최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1,100평 규모의

첨단산학캠퍼스를 개소했다.

이곳에는 FMS 학교기업 및 (사)부품산업 테크노센터,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입주하여 학생현장교육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학교기업의 요람으로 발돋움한다. 산학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산학캠퍼스에는 조선대학교가 보유해온 각종 첨단장비를 집적하여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한편, 생산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제까지의 대학에 설비와 장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교육을 해온 것에서 탈피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생산실습설비를 산업단에 집적하여 생산현장에서 교육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룬 중심의 대학교육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첨단 산학캠퍼스가 자리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5대 신(新)기술 응용산업'의 핵심거점이다. '5대 신(新)기술 응용산업'은 ▲광가입자망(FTTH)사업 ▲반도체 광원(LED)사업 ▲생명정보기술(BIT) 융합 기술사업 ▲나노기술집적화사업 ▲정밀금형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큰 새로운 기술산업이다. 광주시는 '국내 최고'라는 말을 들을 만큼 광산업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첨단과학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5대 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 세계가 알아주는 생산거점으로 키워낼 작정이다.

광주를 솔라시티(solar city)로 건설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는 9월 말 그린빌리지를 완공한다. 태

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 생산과 급탕, 난방 등을 할 수 있는 표준 주택 111세대가 들어설 그린빌리지는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을 실제로 적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시범마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생물연구센터, 당뇨병연구센터, 치과기자재기술혁신센터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Think Tank로서 중심축이 되고 있다.

V.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

조선대학교 학사제도의 특징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2002년 국제화부문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NICE(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해외캠퍼스, 국제봉사, 해외체험연구, 해외인턴십 등 다양한 영역의 현지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고양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조선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6학년도 1학기부터는 미국 머레이 대학과 2+2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은 학부 6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7학기부터 대학원에 개설된 각학과 기본교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석사과정 현행 4학기에서 1학기를 단축하여 3학기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넓은 진로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 단축을 통한 교육비 절감이

“

조선대학교는 NURI사업을 발판으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해 전국대학 순위 TOP 10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지역혁신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NURI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취업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핵심전략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정착, 신(新)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산학캠퍼스 운영,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에 핵심적 기여, 취업률 70% 달성, 우수학생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도입된 ‘전일제 수업’은 1교시부터 14교시까지 본인이 편리한 시간대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간활용 및 자기계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외국어대학에서는 3년은 우리대학에서, 1년은 해외 자매대학에서 공부하는 ‘3+1제도’에 이어 ‘2+2 제도’ 등 다양한 해외유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2 제도’는 2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고 2년은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여 2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Ⅵ. 최첨단 교육환경 조성

매년 봄이면 조선대학교 장미원에는 세계 각국의 장미가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전국

적 관광명소로 부각된 장미원을 비롯해 인조잔디 구장, 산책로, 예술적 조형물을 갖춘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웰빙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유니버시티 파크사업을 통해 캠퍼스 권역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동문 헌수기금 모금을 통해 식목과 소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 첨단교육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노후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단행하고 현대식 태양열 기숙사와 멀티미디어 정보센터와 장애인 정보지원실을 갖춘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로스쿨 전용 기숙사로 활용될 황금추관 등 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첨단교육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및 연구시스템을 갖춘 조선대학교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